

미국 청소년지표 1996*

김 정 주**

미국청소년지표는 14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미국청소년들의 생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1989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한 1996년 미국의 청소년 지표에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건강, 시민성과 가치관, 미래 등의 5개 영역에 69개 항목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인구영역에서는 청소년인구의 변화양상을 23개 항목의 지표가 제시되어,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취학비율의 증가, 결혼비율의 감소와 결혼연령의 증가, 이혼과 미혼출산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아동의 증가, 여성취업가정의 증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영역에서는 21개 항목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률의 증가, 고등학교 중퇴비율의 감소추세와 고등학생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활동, 청소년들의 취업과 소비지출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사망과 질병, 약물 범죄피해 등에 관한 8개 항목의 지표를 소개하였는데, 자살과 살인에 의한 사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 약물과 음주 등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성 및 가치관의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 가치관, 범죄, 교육적 포부 등 8개 항목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교육적 포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영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활동과 수입, 직업이동,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 등 9개 항목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실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I. 서 론

미국의 청소년지표는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1989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14세에서

* 이 자료는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발간한 "Youth Indicators, 1996"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원문은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ces.ed.gov)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24세에 해당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생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 근로, 교육, 건강, 태도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구성상에서 1996년도 현재의 단면적인 양상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1950년대에서 1996년에 이르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양상을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상에서 행정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자료 등을 사용하여 청소년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지표, 1996’의 구성은 크게 가정(Home), 학교(School), 건강(Health), 시민성과 가치관(Citizenship and Value), 미래(Future) 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9개 항목의 지표가 제시되어있다.

가정영역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인구 및 가족구성과 가족의 수입 등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총 23개 항목의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학교영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현황 설명, 학교교육의 결과, 학교의 경험활동 등 3가지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21개 항목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건강영역에서는 질병, 사망, 범죄피해 등 8개 항목의 지표를 제시하였고, 시민성 및 가치관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 가치관, 범죄, 교육적 포부 등 8개 항목, 미래영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활동, 고등학교 졸업후의 수입, 직업이동,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 등 9개항목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II. 가정영역(Home)

가정영역에서는 크게 인구 및 가족구성에 관한 지표, 가족의 구성 등 두 개의 하위영역에 따라 23개 항목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정영역 중 인구 및 가족구성에 관한 지표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의 저하로 청소년 인구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율이 1950년도에 16.1%에서 1975년도에 20.8%를 최고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1994년에는 15.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원인은 '50~'60년대의 베이비붐에 의해서 늘어난 인구가 청소년이 된 '70~'80년대에 최고를 이루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의 변화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50~'60년대의 베이비붐과 같은 출생율이 높은 세대의 인구집단이 성장하여 학교에 진학하게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학교가 필요해지고, 보다

많은 교사를 고용해야 하고, 의료보장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압력이 증가한다. 출생율이 낮을 때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의 청소년인구의 변화가 학교와 대학, 노동시장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0~'60년대의 베이비붐에 의하여 늘어난 인구 때문에 '50~'60년대에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이 팽창하게 되고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교사가 채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베이비붐의 후유증이 사라지고 출생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으로써 학교가 활용도가 낮아지고 교사가 과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1년부터 1984년 사이에는 학생연령층의 감소로 등록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한편 베이비붐세대들이 20대가 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취업경쟁이 심화여지고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이러한 팽창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 퇴직연금과 보건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21세기 초반 10여년 간 사회보장을 받게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1985년에서 1994년 사이에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 *public school*에 취학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까지 전체 초중등학교 등록이 1971년도의 최고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다음 세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팽창이 보다 많은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보장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하는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 청소년의 인구 구성 또한 변하고 있는데, 취학전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소수집단의 구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결혼 연령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평균 결혼연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19세기말의 결혼연령을 초과하고 있다. 1950년대는 조혼 *early marriage*하는 시기였다. 1950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 조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족구조도 변화하여 자녀를 갖은 양친가족 *married-couple families*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 1985년까지 20~24세의 여성들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25~29세의 여성들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30~34세 여성들의 출산율은 1980년 이후 30%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1960년대의 출산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80년 이후 15~44세 사이 여성들의 출산율이 안정되고 있다.

네 번째는 이혼율의 증가, 미혼출산의 증가 등으로 편부모하에서 자라는 아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70년~1994년 사이에 양친부모하에서 사는 18세이하의 아이들의 비율이 10%감소한데 비하여 편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의 아이들은 증가하고 있다. 또 가족형성^{Family Formation}에서의 변화양상은 아동에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의 수입^{Family Income}의 변화는 가족의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수입은 변화가 없어 1인당 GNP의 측면에서 수입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의 변화에서 남자들의 수입이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취업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 특히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율이 1960년대 39%에서 1993년에는 7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청소년인구(Number of Young Adults)

미국에서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있는 14~24세 연령의 인구는 표 1과 같이 1994년 현재 39,690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4세~17세가 5.5%, 18~19세가 2.7%, 20~21세가 2.7%, 22~24세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이후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55년에 1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꾸준히 증가하여 1975년에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였다. 이처럼 '70~'80년대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50~'60년대의 베이비붐에 의해서 증가한 인구가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출생율(Births)

출생율을 15세~44세까지의 가임여성 1,000명당 출산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1992년 68.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950년도에 106.2명, 1960년도 118.0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50~'60년대에는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으며 그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에서 1980년까지는

표 1 : 청소년인구

(단위 : 천명)

연도	전체인구	(%)	14~24세 전체	%	14~17세	%	18~19세	%	20~21세	%	22~24세	%
1950	152,271	100.0	24,519	16.1	8,444	5.5	4,395	2.9	4,551	3.0	7,129	4.7
1955	165,931	100.0	24,215	14.6	9,248	5.6	4,254	2.6	4,189	2.5	6,525	3.9
1960	179,979	100.0	26,964	15.0	11,211	6.2	4,886	2.7	4,443	2.5	6,425	3.6
1965	193,526	100.0	33,999	17.6	14,146	7.3	6,450	3.3	5,503	2.8	7,902	4.1
1970	203,984	100.0	39,909	19.6	15,921	7.8	7,410	3.6	6,850	3.4	9,728	4.8
1975	215,465	100.0	44,860	20.8	17,125	7.9	8,418	3.9	8,089	3.8	11,228	5.2
1980	227,255	100.0	46,246	20.3	16,143	7.1	8,718	3.8	8,669	3.8	12,716	5.6
1985	237,924	100.0	43,790	18.4	14,888	6.3	7,637	3.2	8,370	3.5	12,895	5.4
1986	240,133	100.0	43,051	17.9	14,824	6.2	7,483	3.1	8,024	3.3	12,720	5.3
1987	242,289	100.0	42,196	17.4	14,502	6.0	7,502	3.1	7,742	3.2	12,450	5.1
1988	244,499	100.0	41,378	16.9	14,023	5.7	7,701	3.1	7,606	3.1	12,048	4.9
1989	246,819	100.0	40,692	16.5	13,536	5.5	7,898	3.2	7,651	3.1	11,607	4.7
1990	249,402	100.0	40,137	16.1	13,310	5.3	7,693	3.1	7,883	3.2	11,251	4.5
1991	252,131	100.0	39,760	15.8	13,418	5.3	7,173	2.8	8,013	3.2	11,156	4.4
1992	255,028	100.0	39,593	15.5	13,653	5.4	6,889	2.7	7,756	3.0	11,295	4.4
1993	257,783	100.0	39,590	15.4	13,928	5.4	6,899	2.7	7,265	2.8	11,498	4.5
1994	260,341	100.0	39,690	15.2	14,427	5.5	6,937	2.7	6,972	2.7	11,354	4.4

20~2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25~2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연령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청소년들의 가족형성(Family Formation)

1994년도 고등학생의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혼인상태를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퇴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등학교 중퇴자나 미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먼저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5.3%가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결혼 7.9%, 동거 6.0%, 이혼 0.8% 등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11.7%로 나타났으며, 이

표 2 : 출생율

(단위 : 명)

연 도	15~44세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50	106.2	81.6	196.6	166.1	103.7	52.9	15.1
1960	118.0	89.1	258.1	197.4	112.7	56.2	15.5
1970	87.9	68.3	167.8	145.1	73.3	31.7	8.1
1980	68.4	53.0	115.1	112.9	61.9	19.8	3.9
1985	66.3	51.3	108.9	110.5	68.5	23.9	4.0
1990	70.9	59.9	116.5	120.2	80.8	31.7	5.5
1991	69.6	62.1	115.7	118.2	79.5	32.0	5.5
1992	68.9	60.7	114.6	117.4	80.2	32.5	5.9

주 : 가입여성 1,000명당 출산인구

중 9.4%가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2.1%가 2명, 0.2%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퇴자의 경우에는 독신이 62.1%로 나타났고, 결혼 19.2%, 동거 14.1%, 이혼 4.6%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상황을 보면 48.1%가 부모가 되었으며, 이중 32.1%는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2명 11.7%, 3명 이상 4.4%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졸업자 보다는 중퇴자가 빨리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출산에 있어서 중퇴자 여성이 64.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졸업한 남자가 가장 낮은 7.0%로 나타났다.

4. 청소년들의 세대구성 (Living Arrangement of Young Adults)

18~24세의 청소년들의 세대구성을 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전체의 53.0%가 세대원으로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1.3%는 호주가 되었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9.3%가 단독세대주, 16.4%가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호주 또는 배우자로 사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세대원으로 사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세대원으

표 3 : 가족형성

(단위 : %)

구 분		계	성 별		활 동 별		
			남 자	여 자	학 생	취 업	가 사
고등학교 졸업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인상태	독신	85.3	89.3	81.3	96.8	78.0	24.6
	결혼	7.9	5.4	10.5	1.6	10.5	50.2
	동거	6.0	4.9	7.1	1.5	10.2	20.8
	이혼	0.8	0.5	1.1	0.1	1.3	4.4
자녀수	없음	88.3	93.0	83.5	95.5	84.7	26.9
	있음	11.7	7.0	12.9	4.5	15.3	73.1
고등학교 중퇴자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혼인상태	독신	62.1	71.4	52.1	—	67.7	34.3
	결혼	19.2	12.9	26.1	—	15.4	41.8
	동거	14.1	10.7	17.8	—	11.4	19.6
	이혼	4.6	5.1	4.0	—	5.6	4.4
자녀수	없음	51.9	66.6	36.0	—	60.1	12.1
	있음	48.1	33.4	64.0	—	39.9	87.9

주 : 1992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4년에 조사한 자료이며, 중퇴자는 1992년까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1994년 현재까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

로 사는 비율이 1950년대 52.4%에서 1993년에 59.3%로 다소 증가한 반면에 호주 또는 배우자로 사는 비율은 31.6%에서 13.7%로 크게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세대원으로 사는 비율은 34.9%에서 46.9%로 다소 증가한 반면에, 호주 또는 배우자로 사는 비율은 51.1%에서 28.8%로 크게 낮아졌다. 즉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호주 또는 배우자로 사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세대원으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호주 또는 배우자로 사는 비율은 남자의 13.7%의 두 배가 넘는 28.8%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 청소년의 세대구성

구 분	18~24세 청소년의 세대구성											
	1960		1970		1980		1990		1992		1993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전 체	14,718	100.0	22,357	100.0	29,122	100.0	25,310	100.0	24,434	100.0	24,309	100.0
세대원	6,333	43.0	10,582	47.3	14,091	48.4	13,367	52.8	13,225	54.1	12,891	53.0
호주 또는 배우자	6,186	42.0	8,470	37.9	8,408	28.9	5,631	22.2	5,108	20.9	5,187	21.3
단독세대주	354	2.4	1,066	4.8	2,776	9.5	2,252	8.9	2,194	9.0	2,252	9.3
기 타	1,845	12.5	2,239	10.0	3,848	13.2	4,060	16.0	3,907	16.0	3,979	16.4
남 자	6,842	100.0	10,398	100.0	14,278	100.0	12,450	100.0	12,083	100.0	12,049	100.0
세대원	3,583	52.4	5,641	54.3	7,755	54.3	7,232	58.1	7,296	60.4	7,145	59.3
호주 또는 배우자	2,160	31.6	3,119	30.0	3,041	21.3	1,838	14.8	1,626	13.5	1,652	13.7
단독세대주	182	2.7	563	5.4	1,581	11.1	1,228	9.9	1,216	10.1	1,271	10.5
기 타	917	13.4	1,075	10.3	1,902	13.3	2,152	17.3	1,945	16.1	1,981	16.4
여 자	7,876	100.0	11,959	100.0	14,844	100.0	12,860	100.0	12,351	100.0	12,260	100.0
세대원	2,750	34.9	4,941	41.3	6,336	42.7	6,135	47.7	5,929	48.0	5,746	46.9
호주 또는 배우자	4,026	51.1	5,351	44.7	5,367	36.2	3,793	29.5	3,482	28.2	3,535	28.8
단독세대주	172	2.2	503	4.2	1,195	8.1	1,024	8.0	978	7.9	981	8.0
기 타	928	11.8	1,164	9.7	1,946	13.1	1,908	14.8	1,962	15.9	1,998	16.3

5. 결혼 및 이혼율(Marriage and Divorce Ratio)

199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결혼 및 이혼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인구 천명당 결혼인구는 9.3명, 이혼인구는 4.8명으로 나타났다. 결혼비율은 1960년도에 8.5명에서 1970~80년까지 10.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의 경우는 1960년도에 2.2명에서 1980년에 5.2명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혼 및 이혼 비율은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혼인구의 경우 9.3명으로 포르투갈의 7.1명, 룩셈부르크의 6.4명,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6.2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혼인구의 특징은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을 전후로 하여 결혼인구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미국이 1990년을 기준으로 다른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표 5 : 결혼 및 이혼율

(단위 : 명)

구 분	1960	1970	1980	1988	1990	1992
인구 천명당 결혼인구						
미 국	8.5	10.6	10.6	9.7	9.8	9.3
벨기에	7.2	7.6	6.7	6.0	6.5	5.8
덴마크	7.8	7.4	5.2	6.3	6.1	6.2
프랑스	7.0	7.8	6.2	4.9	5.1	4.7
서 독	9.4	7.3	5.9	6.5	6.5	5.6
그리스	7.0	7.7	6.5	4.8	5.9	4.7
아일랜드	5.5	7.0	6.4	5.1	5.1	4.5
이탈리아	7.7	7.3	5.7	5.5	5.6	5.3
룩셈부르크	7.1	6.3	5.9	5.5	6.1	6.4
네덜란드	7.8	9.5	6.4	6.0	6.4	6.2
포르투갈	7.8	—	7.4	6.9	7.3	7.1
스페인	7.7	7.3	5.9	5.5	5.7	5.5
영 국	7.5	8.5	7.4	6.9	6.5	—
인구 천명당 이혼인구						
미 국	2.2	3.5	5.2	4.7	4.7	4.8
벨기에	0.5	0.7	1.5	2.1	2.0	—
캐나다	0.4	1.4	2.6	—	2.9	—
덴마크	1.5	1.9	2.7	2.9	2.7	2.5
프랑스	0.7	0.8	1.5	1.9	1.9	—
서 독	0.8	1.2	1.6	2.1	1.9	—
이탈리아	—	—	0.2	0.4	0.5	—
일 본	0.7	0.9	1.2	1.3	1.3	—
룩셈부르크	0.5	0.6	1.6	2.1	2.0	—
네덜란드	0.5	0.8	1.8	1.9	1.9	1.8
포르투갈	0.1	0.1	—	0.9	0.9	—
스웨덴	1.2	1.6	2.4	2.1	2.3	—
영 국	0.5	1.2	3.0	2.9	2.9	—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미국이 4.7명으로 가장 높고, 캐나다와 영국이 2.9명, 덴마크가 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가 0.5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미국에서는 1980년도 이후로 이혼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도 다소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캐나다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6. 미혼여성의 출산(Birth to Unmarried Women)

1992년도에 15~44세의 가임여성 중 미혼여성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미혼여성 천명당 45.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혼여성의 출산율은 1950년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1950년도에 14.1명에서 1960년에 21.6명, 1970년에 26.4명, 1980년에 29.4명, 1990년에 43.8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1992년에는 45.2명으로 증가하였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1965년까지는 25~29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출산을 나타내었으나 1970년도 이후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20~24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었고, 15~19세 연령층의 출산율도 1950년도에

표 6 : 미혼여성의 출산율

(단위 : 명)

연 도	15~44세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50	14.1	12.6	21.3	19.9	13.3	7.2	2.0
1955	—	15.1	33.5	33.5	22.0	10.5	—
1960	21.6	15.3	39.7	45.1	27.8	14.1	3.6
1965	23.5	16.7	39.9	49.3	37.5	17.4	4.5
1970	26.4	22.4	38.4	37.0	27.1	13.6	3.5
1975	24.5	23.9	31.2	27.5	17.9	9.1	2.6
1980	29.4	27.6	40.9	34.0	21.1	9.7	2.6
1985	32.8	31.6	46.8	39.8	25.0	11.6	2.5
1990	43.8	42.5	65.1	56.0	37.6	17.3	3.6
1991	45.2	44.8	68.0	56.5	38.1	18.0	3.8
1992	45.2	44.6	68.5	56.5	37.9	18.8	4.1

주 : 미혼여성 1,000명당 출산인구

12.6명에서 1992년에 44.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 45.2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미혼여성의 출산을 증가하는 편모하의 아동이 양친부모하의 아동에 비하여 빈곤에 처해있는 비율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60년에서 1992년 사이의 전체 출산인구중 미혼여성에 의한 출산비율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1992년도의 경우 덴마크의 경우 46.4%로 가장 높고, 프랑스 33.2%, 영국 30.8%, 미국 30.1%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스 2.6%, 이탈리아 6.8%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구(Family with Children)

전체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표 7과 같이 1994년에 49.7%인 34,018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친모두 있는 가구는 73.7%이고, 편부모인 가구는 26.3% 이었다. 편부모 가구의 비율은 1950년도에 7.4%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양친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표 7 :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

연도	전 체 가구수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 (단위 : 천 가구)					
		계		양친가구		편부모가구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950	39,193	20,267	51.7	18,772	92.6	1,495	7.4
1960	45,062	25,662	56.9	23,333	90.9	2,329	9.1
1970	51,237	28,666	55.9	25,406	88.6	3,260	11.4
1980	58,426	30,517	52.2	24,568	80.5	5,949	19.5
1990	66,090	32,289	48.9	24,537	76.0	7,752	24.0
1994	68,490	34,018	49.7	25,058	73.7	8,961	26.3

8. 부모의 취업(Parents' Employment)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취업형태를 1993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 양친 모두 취업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에 아버지만 취업한 가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1975년에서 1993년 사이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결혼한 여성의 취업인구와 취업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양친모두 취업한 비율이 1975년 37.1%에서 1993년 59.0%로 증가하였으며, 부친만 취업한 비율은 53.3%에서 31.2%로 감소하였다. 즉 1970년대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친의 취업으로 생활하던 유형에서 1993년도에는 양친모두 취업하여 생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모친만 취업한 비율인 5.5%를 더하면 모친의 취업비율은 64.5%로 나타난다. 편모가정에서의 모친의 취업은 양친가정에서의 취업율과 비슷한 61.8%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모친의 취업율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의 여성 취업율은 1970년에 30.3%에서 1993년에는 59.6%로 증가하였고, 6~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에 49.2%에서 1993년에 74.9%로 증가하였다.

표 8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취업

(단위 : 천 가구)

구 분	1975		1980		1985		1991		1992		1993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체가구수	55,698	100.0	59,910	100.0	63,232	100.0	66,959	100.0	67,842	100.0	68,838	100.0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30,060	54.0	31,325	52.3	31,496	49.8	32,981	49.3	33,358	49.2	33,916	49.3
양친가구	25,236	100.0	24,974	100.0	24,225	100.0	24,435	100.0	24,460	100.0	24,746	100.0
양친 모두 취업	9,358	37.1	11,925	47.7	12,844	53.0	14,342	58.7	14,426	59.0	14,606	59.0
부친만 취업	13,441	53.3	10,975	43.9	9,227	38.1	7,857	32.2	7,561	30.9	7,717	31.2
모친만 취업	895	3.5	852	3.4	960	4.0	1,180	4.8	1,293	5.3	1,357	5.5
양친 모두 미취업	1,543	6.1	1,222	4.9	1,194	4.9	1,058	4.3	1,180	4.8	1,068	4.3
편모가구	4,400	100.0	5,718	100.0	6,345	100.0	7,323	100.0	7,564	100.0	7,781	100.0
모친의 경제 활동인구	2,635	59.9	3,833	67.0	4,302	67.8	4,970	67.9	5,090	67.3	5,311	68.3
모친 취업	2,306	52.4	3,412	59.7	3,741	59.0	4,431	60.5	4,491	59.4	4,75	561.1
모친 미취업	329	7.5	421	7.4	561	8.8	539	7.4	599	7.9	556	7.1
편부가구	424	100.0	633	100.0	926	100.0	1,223	100.0	1,334	100.0	1,389	100.0
부친의 경제 활동인구	369	87.0	561	88.6	834	90.1	1,113	91.0	—	—	—	—
부친 취업	327	77.1	514	81.2	750	81.0	—	—	—	—	—	—
부친 미취업	42	9.9	47	7.4	84	9.1	—	—	—	—	—	—

9. 빈곤(Poverty)

18세 이하 아동들의 빈곤율을 보면 표 9와 같이 196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1970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도에 빈곤에 처한 18세 이하의 아동의 비율이 26.5%에서 1970년도에는 14.9%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여 1994년에는 18세 이하 전체 아동 중에서 21.2%가 빈곤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모가정 아동의 경우 빈곤율이 1960년도에 68.4%에서 1980년에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994년에는 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아동 중에서 편모가구의 비율은 1960년도에 23.7%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4년도에는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18세 이하 아동의 빈곤

(단위 : 천명)

연 도	전체가구		편모가구		전체빈곤 아동중 편모가구비율(%)
	18세이하 빈곤아동	%	18세이하 빈곤아동	%	
1960	17,288	26.5	4,095	68.4	23.7
1970	10,235	14.9	4,689	53.0	45.8
1975	10,882	16.8	5,597	52.7	51.4
1980	11,114	17.9	5,866	50.8	52.8
1985	12,483	20.1	6,716	53.6	53.8
1989	12,001	19.0	6,808	51.1	56.7
1990	12,715	19.9	7,363	53.4	57.9
1992	14,521	21.6	8,368	54.6	57.6
1993	14,961	22.0	8,503	53.7	56.8
1994	14,610	21.2	8,427	52.9	57.7

III. 학교영역(School)

학교영역에서의 1994년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취학한 학생수가 63.9백만명으로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18세에서 24세의 취학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50년에는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

업한 인구가 5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8%이었으나 1995년도에는 고등학교졸업 87%, 4년제 대학졸업 25%로 증가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학비 부담이 증가하여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1974년 37%에서 1994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중퇴dropouts의 비율은 1980년 19.0%에서 매년 감소하여 1994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의 비율도 높아져 1959~1960년에는 전체 학사학위의 35%, 석사학위의 32%가 여성에게 수여되었으나 1993~1994년에는 학·석사학위의 55%를 여성이 취득하였다. 또한 박사학위 비율도 같은 기간에 13%에서 39%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들의 방과후활동After School Activities을 1980년과 1992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회 이상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비율이 59.1%에서 73.3%로 증가하였고, 수업이 있는 날 5시간이상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16.1%에서 8.4%로 감소하였다. 1992년도에 일주일에 1회 이상 PC를 사용하는 비율은 23.7%, 친구와 함께내는 비율 88.1%, 부모와 함께 하는 비율 66.7% 등이었고, 1시간 이상 학교공부와 관계없는 책을 읽는 비율은 55.4%이었다.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농구 등과 같은 집단스포츠,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스포츠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어로빅이나 조깅, 장비를 사용하는 활동 등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취학인구(School Enrollment)

1994년도를 기준으로 취학인구를 14~29세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전 연령층에서 취학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17세 연령층의 취학율은 1950년에 83.3%에서 1970년에 94.1%로 증가한데 이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8~24세까지 연령층의 취학율은 1960년대에 크게 증가한 후 1970년대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8~21세 연령층의 경우 1979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고, 22~24세 연령층의 취학율은 198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표 10 : 취학인구

(단위 : %)

연도	14~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25~29세
1950	83.3	29.4	—	3.0	—
1955	86.9	31.5	—	4.2	—
1960	90.3	38.4	19.4	8.7	4.9
1965	93.2	46.3	27.6	13.2	6.1
1970	94.1	47.7	31.9	14.9	7.5
1975	93.6	46.9	31.2	16.2	10.1
1976	93.7	46.2	32.0	17.1	10.0
1977	93.6	46.2	31.8	16.5	10.8
1978	93.7	45.4	29.5	16.3	9.4
1979	93.6	45.0	30.2	15.8	9.6
1980	93.4	46.4	31.0	16.3	9.3
1981	94.1	49.0	31.6	16.5	9.0
1982	94.4	47.8	34.0	16.8	9.6
1983	95.0	50.4	32.5	16.6	9.6
1984	94.7	50.1	33.9	17.3	9.1
1985	94.9	51.6	35.3	16.9	9.2
1986	94.9	54.6	33.0	17.9	8.8
1987	95.0	55.6	38.7	17.5	9.0
1988	95.1	55.6	39.1	18.2	8.3
1989	95.7	56.0	38.5	19.9	9.3
1990	95.8	57.2	39.7	21.0	9.7
1991	96.0	59.6	42.0	22.2	10.2
1992	96.7	61.4	44.0	23.7	9.8
1993	96.5	61.6	42.7	23.6	10.2
1994	96.6	59.7	44.0	23.2	10.4

2. 고등학교 프로그램(Reported High School Program)

고등학생들의 일반과정*general*, 입시준비과정*college preparatory or academic*, 직업과정*vocational*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1992년의 경우 일반과정이 4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입시준비과정이 43.0%, 직업과정 11.7% 등으로 나타났다. 1982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과정과 입시준비과정이 증가한 반면에 직업과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과정에는 남자가 46.3%로 여자 44.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입시준비과정에는 남자 41.8% 보다는 여자 44.2%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입시과정에는 아시아계가 50.9%로 가장 많고 백인 45.7%, 흑인 35.6%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과정은 인디언이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남미계 56.4%, 흑인 48.9%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과정은 인디언 16.7%, 흑인 15.4%, 남미계 13.1%인 반면에 아시아계는 8.8%로 나타났다.

표 11 : 고등학교 프로그램

(단위 : %)

구 분	일 반		입시준비		직 업	
	1982	1992	1982	1992	1982	1992
전 체	35.2	45.3	37.9	43.0	26.9	11.7
성별 남자	38.1	46.3	36.8	41.8	25.1	11.9
여자	32.4	44.2	38.9	44.2	28.7	11.6
인종별 백인	34.8	43.3	40.6	45.7	24.6	11.0
흑인	35.1	48.9	33.3	35.6	31.6	15.4
남미계	37.4	56.4	24.9	30.6	37.7	13.1
아시아계	27.5	40.3	55.9	50.9	16.6	8.8
인디언	55.3	60.8	19.1	22.6	25.6	16.7

3. 학교중퇴(Dropouts)

16~24세 연령층의 고등학교 중퇴비율은 표 12와 같이 나타났는데, 1994년도에는 11.5%였다. 이러한 비율은 1967년도의 17.0%에서 1980년도에 14.1%, 1990년도에 12.1%, 1994년도에 11.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2.3%로 여자 10.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1967년에서 1975년까지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중퇴비율이 더 높았으나 1980년도 이후에는 남자의 중퇴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7%로 가장 낮고, 흑인 12.6%인데 비하여 남미계의 경우 3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직접 비교가 가능한 1975년부터 1994년 사이에 백인은 11.4%에서 7.7%로, 흑인은 22.9%에서 1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남미계의 경우는 매년 27.5%에서 35.8%사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 : 고등학교 중퇴

(단위 : %)

연 도	전 체	성 별		인종별		
		남 자	여 자	백 인	흑 인	남미계
1967	17.0	16.5	17.3	15.4	28.6	—
1970	15.0	14.2	15.7	13.2	27.9	—
1975	13.9	13.3	14.5	11.4	22.9	29.2
1980	14.1	15.1	13.1	11.4	19.1	35.2
1981	13.9	15.1	12.8	11.4	18.4	33.2
1982	13.9	14.5	13.3	11.4	18.4	31.7
1983	13.7	14.9	12.5	11.2	18.0	31.6
1984	13.1	14.0	12.3	11.0	15.5	29.8
1985	12.6	13.4	11.8	10.4	15.2	27.6
1986	12.2	13.1	11.4	9.7	14.2	30.1
1987	12.7	13.2	12.1	10.4	14.1	28.6
1988	12.9	13.5	12.2	9.6	14.5	35.8
1989	12.6	13.6	11.7	9.4	13.9	33.0
1990	12.1	12.3	11.8	9.0	13.2	32.4
1991	12.5	13.0	11.9	8.9	13.6	35.3
1992	11.0	11.3	10.7	7.7	13.7	29.4
1993	11.0	11.2	10.9	7.9	13.6	27.5
1994	11.5	12.3	10.6	7.7	12.6	30.0

주 : 중퇴는 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청소년

4.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Computer Use by Student)

1993년도에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실태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학교에 서의 컴퓨터 이용비율은 전체학생의 59.0%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중학생의 경우 68.9%, 고등학생의 경우 58.2%, 대학생의 경우 55.2%, 대학원생 이상은 52.1% 등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에서 숙제 이외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7.0%이었는데 초중학생의 경우 24.7%, 고등학생의 경우 28.7%, 대학생은 32.8%, 대학원생은 52.6% 등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컴퓨터 이용비율이 높았다. 가정에서 숙제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14.9%이었으며, 이중 초중학생 10.8%, 고등학생은 20.9%, 대학생은 23.1%, 대학원생은 36.6%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숙제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초중학생의 경우 주로 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반면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 등에서 숙제나 숙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 컴퓨터 이용실태

(단위 : %)

구 분	총 계	초중학생 (grade 1~8)	고등학생 (grade 9~12)	대학생	대학원생
학교에서 이용	59.0	68.9	58.2	55.2	52.1
가정에서 이용	27.0	24.7	28.7	32.8	52.6
가정에서 숙제를 위한 이용	14.9	10.8	20.9	23.1	36.6

주 : 총계에는 유아원과 유치원생 포함

5. 학력성취도 비교(International Achievement Comparison)

1991년도에 13세 학생들의 학력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미국 학생의 성취도는 수학부문에서는 평균이하, 과학부문에서는 평균정도의 학력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국제 비교에서 특이한 사항은 한국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분야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만, 스위스, 소련, 헝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에 조사한 독해 reading분야에서의 14세 청소년들을 성취도를 국제비교 결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8위로 나타났다.

표 14 : 학력성취도의 국제비교

(단위 : 점수)

국 가	13세, 정답 비율		국 가	13세, 평균점수*
	수 학	과 학		독 해
한 국	73	78	핀 란 드	560
대 만	73	76	프 랑 스	549
스 위 스	71	74	스 웨 덴	546
소 련	70	71	뉴 질 란 드	545
형 가 리	68	73	형 가 리	536
프 랑 스	64	69	스 위 스	536
이스라엘	63	70	아이슬랜드	536
캐 나 다	62	69	미 국	535
스코틀랜드	61	68	홍 콩	535
아일랜드	61	63	슬로베니아	532
슬로베니아	57	70	동 독	526
스 페 인	55	68	덴 마 크	525
미 국	55	67	캐 나 다	522
요 르 단	40	57	서 독	522

* : 평균치 500, 표준편차 100

6. 특별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1992년에 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지원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학습클럽 *academic club* 25.1%, 명예직 협회활동 *honorary society* 18.5%, 학생자치회 *student government* 15.4%, 학보·졸업앨범 *newspaper or yearbook* 18.8% 등으로 학습관련 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972년, 1980년과 비교하면 학생자치회 활동은 1972년 19.4%에서 1995년 15.4%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명예직 협회활동은 1972년 14.4%에서 1992년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특별활동 참여율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 고등학생의 특별활동참여

(단위 : %)

구분	학습 클럽			명예직 협회활동			학생자치회			학보·졸업앨범		
	1972	1980	1992	1972	1980	1992	1972	1980	1992	1972	1980	1992
전체	25.6	23.8	25.1	14.4	17.1	18.5	19.4	18.5	15.4	20.2	19.9	18.8
남자	20.3	19.0	22.8	10.7	13.8	14.4	18.1	15.8	13.1	14.7	15.4	14.0
여자	30.9	28.3	27.4	18.1	20.1	22.7	20.8	21.0	17.7	25.5	24.0	23.5

7. 고등학생의 방과후 활동(After School Activities)

1992년도 고등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주1회 이상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비율은 73.3%이었고, 방과후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8.4%, 주1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23.7%, 주1회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비율은 88.1%, 주1회 이상 부모와 같이 뭔가를 행하는 비율은 66.7%, 주당 1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비율은 55.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비율에서 남자가 다소 높았으나 부모와 함께 하거나 독서를 하는 비율은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방과후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종별로는 흑인 21.3%, 인디언 16.8%인데 비하여 백인과 아시아계는 6.4%로 나타났다. 주1회 이상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비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인 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 사용, 친구들과 어울림, 부모와 함께 함, 독서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 고등학생의 방과후 활동

(단위 : %)

구 분	주1회이상 주변을 드 라이브	방과후 5 시간 이상 TV시청	주1회이상 컴퓨터 사 용*	주1회이상 친구들과 어울림	주1회이상 부모와 함 께함	주1시간 이상 독서**
전 체	73.3	8.4	23.7	88.1	66.7	55.4
성별 남자	74.3	8.5	28.1	88.2	61.2	53.1
여자	72.3	8.4	19.3	88.0	72.1	57.7
사회경제적 지위						
낮음	69.6	12.0	18.9	80.8	59.6	51.6
중간	75.3	9.4	23.3	88.1	66.3	55.0
높음	72.4	4.1	27.7	93.2	71.1	58.6

*: 숙제나 게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 학교학습과 관련 없는 책을 읽는 비율

8.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Sports Participation)

1994년도 기준으로 7세 이상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현황은 표 17과

같다. 전체적으로 12~17세의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1세의 청소년들의 경우 수영 25.9%, 자전거 타기 21.4%, 캠핑 18.4%, 민물낚시 17.4%, 야구 12.1%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12~17세 사이의 연령층은 자전거 타기 42.7%, 수영 42.6%, 농구 36.3%, 캠핑 25.4%, 미식축구 22.6%, 민물낚시 21.1%, 야구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8~34세 연령층은 수영 25.9%, 캠핑 20.8%, 민물낚시 19.5%, 자전거 타기 19.7%, 에어로빅 17.3%, 농구 14.9%, 달리기·조깅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단위 : %)

구 분	7~11세	12~17세	18~34세
에어로빅*	10.0	5.0	17.3
야구	6.5	18.9	5.1
농구	12.1	36.3	14.9
자전거*	21.4	42.7	19.7
미용체조*	3.6	5.7	4.8
캠핑	18.4	25.4	20.8
민물낚시	17.4	21.1	19.5
바다낚시	4.9	4.7	5.3
미식축구	6.7	22.6	9.1
골프	10.6	8.6	13.3
하이킹	10.9	12.8	13.2
사냥/사격	7.0	9.7	9.0
라켓볼	2.3	2.0	4.9
달리기/조깅*	8.8	15.5	14.1
스키-알파인	4.6	5.1	7.8
스키-크로스컨츄리	1.5	2.1	1.5
축구	5.4	16.1	3.6
소프트볼	7.8	16.3	11.1
수영*	25.9	42.6	25.9
테니스	5.0	9.5	7.2
배구	7.5	19.3	11.9

* : 연 6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

9. 청소년의 취업(Employment of Students)

학교에 취학중인 16~17세 연령층 청소년의 취업상황을 1993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았다. 남자의 경우 전체의 28.9%가 취업하고 있으며 여자는 31.1%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full-time으로 취업된 경우는 1% 정도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이 주당 35시간 이하의 part-time으로 취업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흑인보다 백인의 취업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흑인의 경우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되지 않은 비율이 남자 51.0%, 여자 35.3%로 백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 청소년의 취업

구 분	남 자			여 자		
	계	백 인	흑 인	계	백 인	흑 인
취 업 계	28.9	33.3	9.8	31.1	36.0	13.0
full-time	1.0	1.1	0.6	1.1	1.2	1.2
part-time*	27.8	32.2	9.1	30.0	34.8	12.0
미 취 업**	21.5	18.4	51.0	18.1	16.0	35.3

* : part-time : 주당 35시간 이하 취업

** : 취업을 원하지만 현재 취업이 안된 상태

10. 청소년들의 지출(Spending of Young Adults)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지출실태는 표 19와 같았다. 1993년도에 도시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 30,692이었으며, 25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의 연간 지출액은 \$ 17,468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가구 평균 지출의 56.9% 수준으로 청소년 가구의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청소년 가구의 지출은 외식비, 알콜음료, 피복비 및 관련 서비스, 교통비, 교육비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 의료비, 보험 등에서는 낮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 도시 가구당 연간 평균 지출(1993년)

지출항목	전체가구		25세 이하 가구	
	금 액	%	금 액	%
연간 총지출	\$ 30,692	100.0	\$ 17,468	100.0
식 비	4,399	14.3	2,631	15.1
집에서의 식비	2,735	8.9	1,339	7.7
외식비	1,664	5.4	1,293	7.4
알콜음료	268	0.9	304	1.7
주거비	9,636	31.4	5,297	30.3
피복비 및 관련서비스	1,676	5.5	1,198	6.9
교통비	5,453	17.8	3,948	22.6
의료비(건강관리)	1,776	5.8	349	2.0
오락비	1,626	5.3	910	5.2
개인관리	385	1.3	228	1.3
독서	166	0.5	72	0.4
교육비	455	1.5	907	5.2
흡연	268	0.9	202	1.2
잡비	715	2.3	266	1.5
기부	961	3.1	95	0.5
개인보험 및 연금	2,908	9.5	1,061	6.1

IV. 건강영역(Health)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의 100,000명당 사망인구는 1950년대 168명에서 1993년 144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은 질병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많다. 1992년도에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의 사망원인별로 100,000명당 사망인구를 보면 자동차 등 교통사고 28.5명, 살인homicide 22.2명, 자살suicide 13.0명, 기타사고 9.3명, 암 5.7명, 심장질환 2.7명, 폐렴·감기 0.6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의 경우 백인남자의 경우 여자나 흑인에 비하여 높고, 살인에 의한 사망은 흑인남자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불법 약물사용 경험은 고등학생의 경우 1975년 55%에서 1992년 41%로 줄어들었으나,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4년도에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를 이전에 사용한 경험과 최근 30일 이내에 사용한 경험으로 조사한 결과 담배(62.0%, 31.2%), 술(80.4%, 50.1%), 기타약물(45.6%, 21.9%)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에 의한 피해실태를 1992년에 1,000명당 피해인원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2세에서

15세 75.7명, 16세에서 19세 77.9명, 20세에서 24세 70.1명, 25세 이상 20.0명으로 나타났다.

1. 질병(Illness)

15~24세의 청소년과 관련되어 보고된 질병의 발병현황은 표 20과 같았다. 1993년의 경우 임질이 가장 많았고, 매독, AIDS 등의 성병의 발병이 높게 나타났다. AIDS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아마비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홍역의 경우는 1985년까지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0년에 다시 크게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임질과 매독 등의 성병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질의 경우 15~19세의 연령층과 20~24세 연령층의 차이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AIDS의 경우는 1990년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 청소년의 질병

(단위 : 명)

구 분	1981	1985	1990	1991	1992	1993
소아마비						
15 ~ 19	2	0	—	1	—	—
20 ~ 24	0	0	—	—	1	—
홍역						
15 ~ 19	466	0	3,106	1,096	325	27
20 ~ 24	128	251	2,540	657	163	24
결핵						
15 ~ 19	656	464	577	601	587	580
20 ~ 24	1,542	1,208	1,290	1,370	1,387	1,263
임질*						
15 ~ 19	243,432	218,821	183,865	159,784	141,660	116,974
20 ~ 24	374,562	341,645	200,625	170,832	151,427	119,739
매독*						
15 ~ 19	4,173	3,132	5,184	4,674	3,828	2,940
20 ~ 24	8,792	7,717	11,224	9,637	7,481	5,469
AIDS						
15 ~ 19		30	148	132	133	487**
20 ~ 24		349	1,567	1,386	1,376	3,771**

* : 민간인

** : HIV양성반응 포함

2. 흡연, 음주, 약물(Tobacco, Alcohol and Drug Use)

고등학생들의 흡연, 음주, 약물의 경험은 표 21과 같다. 1994년의 경우 음주를 경험한 비율이 80.4%로 가장 높고 흡연 경험한 비율은 62.0%, 유해 약물을 경험한 비율이 45.6% 이었다. 유해 약물의 경우 마리화나를 경험한 비율이 18.0%이고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의 약물을 경험한 비율이 27.6%에 달했다. 1975년도 이후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흡연과 음주의 경우 1975년도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1 : 고등학생의 흡연, 음주, 약물 경험

(단위 :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흡 연	73.6	71.0	68.8	64.4	63.1	61.8	61.9	62.0
음 주	90.4	93.2	92.2	89.5	88.0	87.5	80.0	80.4
약 물	55.2	65.4	60.6	47.9	44.1	40.7	42.9	45.6
마리화나	19.0	26.7	20.9	18.5	17.2	15.6	16.2	18.0
기타 약물*	36.2	38.7	39.7	29.4	26.9	25.1	26.7	27.6

* : 기타약물은 hallucinogens, cocaine, heroin, stimulants, sedatives 등

최근 30일 이내에 고등학생이 흡연, 음주, 약물 등의 경험실태는 표 22와 같다. 1994년도에 음주 50.1%, 흡연 31.2%, 약물 21.9% 등으로 나타났고, 약물 중에서 마리화나 13.1%, 기타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의 약물은 8.8

표 22 : 고등학생의 최근 30일 이내에 흡연, 음주, 약물 경험

(단위 : %)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흡 연	36.7	30.5	30.1	29.4	28.3	27.8	29.9	31.2
음 주	68.2	72.0	65.9	57.1	54.0	51.3	48.6	50.1
약 물	30.7	37.2	29.7	17.2	16.4	14.4	18.3	21.9
마리화나	15.3	18.9	14.8	9.2	9.3	8.1	10.4	13.1
기타 약물*	15.4	18.4	14.9	8.0	7.1	6.3	7.9	8.8

* : 기타약물은 hallucinogens, cocaine, heroin, stimulants, sedatives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흡연과 약물의 경우 199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음주의 경우는 199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사망원인(Cause of Death)

5~24세 연령층의 인구 100,000명당 사망인구를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1992년을 기준으로 볼때에 5~14세의 경우 전체사망 인구는 22.5명이고 이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5.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타사고 4.1명, 암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60년 이후 장기적인 변

표 23 : 청소년의 사망원인

(단위 : 명)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5~14세											
전 체	46.6	42.2	41.3	35.2	30.6	26.3	25.8	25.7	24.0	23.6	22.5
교통사고	7.9	8.9	10.2	8.7	7.9	6.9	7.1	6.5	5.9	5.6	5.2
기타사고	11.3	9.8	9.9	9.4	7.1	5.7	5.2	5.3	4.5	4.6	4.1
자 살	0.3	0.3	0.3	0.5	0.4	0.8	0.7	0.7	0.8	0.7	0.9
살 인	0.5	0.6	0.9	1.0	1.2	1.2	1.3	1.5	1.5	1.4	1.6
암	6.8	6.5	6.0	4.8	4.3	3.5	3.2	3.3	3.1	3.1	3.0
심 장 병	1.3	0.9	0.8	0.9	0.9	1.0	0.9	0.8	0.9	0.8	0.8
폐렴/감기	2.6	2.1	1.6	1.0	0.6	0.4	0.4	0.4	0.4	0.4	0.3
15~24세											
전 체	106.3	109.3	127.7	117.3	115.4	95.9	102.1	97.6	99.2	100.1	95.6
교통사고	38.0	44.2	47.2	39.2	44.8	35.7	37.8	34.6	34.1	32.0	28.5
기타사고	18.1	17.5	21.5	21.1	16.9	12.2	10.7	10.2	9.8	9.9	9.3
자 살	5.2	6.2	8.8	11.8	12.3	12.8	12.9	13.0	13.2	13.1	13.0
살 인	5.9	6.8	11.7	13.7	15.6	12.1	15.4	16.5	19.9	22.4	22.2
암	8.3	8.2	8.3	6.8	6.3	5.4	5.0	5.0	4.9	5.0	5.0
심 장 병	4.0	3.1	3.0	2.6	2.9	2.8	2.9	2.5	2.5	2.7	2.7
폐렴/감기	3.0	2.2	2.4	1.7	0.8	0.6	0.7	0.7	0.6	0.7	0.6

주 : 인구 100,000명당 사망인구를 나타냄

화추세는 사망율이 1960년에 46.6명에서 1992년에는 22.5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자살과 살인에 의한 사망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다. 15~24세 연령층의 사망은 5~14세 연령층에 비하여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망율은 95.6명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28.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살인에 의한 사망 22.2명, 자살에 의한 사망 13.0명, 기타사고 9.3% 등으로 나타났다. 1960년 이후 변화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1970년까지 사망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감소추세 속에서도 자살과 살인에 의한 사망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살인에 의한 사망은 1960년도에 5.9명에서 1992년도에는 22.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살에 의한 사망도 1960년에 5.2명에서 1992년에 13.0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2년을 기준으로 살인에 의한 사망을 인종별로 비교해 보면 흑인남자의 경우는 154.4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흑인여자 19.4명, 백인남자 17.5명, 백인여자 4.1명 등으로 나타나 백인보다는 흑인의 사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살의 경우에는 백인남자가 22.7명, 흑인남자 18.0명, 백인여자 3.8명, 흑인여자 2.2명으로 흑인보다 백인의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범죄 피해(Victims of Violent Crime)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상황은 표 24와 같다. 1992년의 경우 12~15세의 청소년은 1,000명당 75.7명이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1988년의 56.9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폭행이 64.8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 9.8명, 강간 1.1명 등의 순이었다. 16~19세 사이의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1992년에 77.9명으로 1988년 72.0명에 비하여 조금 증가하였으며, 폭행이 60.9명으로 가장 높고 강도 15.4명, 강간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4세 청소년은 79.1명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중 폭행이 56.0명으로 가장 높고, 강도 11.4명, 강간 2.6명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범죄피해는 청소년보다 적은 20.0명으로 나타났으며, 폭행 15.5명, 강도 4.2명, 강간 0.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보다는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피해가 훨씬 많았으며 인종별로는 백인보다는 흑인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 청소년의 범죄피해

(단위 : 명)

구 분	1988년	1992년			
		계	강 도	폭 행	강 간
전 체					
12~15세	56.9	75.7	9.8	64.8	1.1
16~19세	72.0	77.9	15.4	60.9	1.6
20~24세	—	70.1	11.4	56.0	2.6
25이상	—	20.0	4.2	15.5	0.3
남 자					
12~15세	71.1	88.6	15.2	73.02	0.3
16~19세	89.0	96.5	19.3	76.82	0.5
20~24세	—	87.0	15.5	68.9	2.6
여 자					
12~15세	41.5	62.2	24.1	56.3	1.9
16~19세	54.7	58.7	11.3	44.5	2.8
20~24세	—	53.4	7.4	43.3	2.7
백 인					
12~15세	55.5	75.0	10.8	63.1	1.1
16~19세	68.9	70.5	10.2	58.3	2.0
20~24세	—	67.5	7.8	57.1	2.6
흑 인					
12~15세	64.5	83.3	25.3	76.5	1.5
16~19세	92.9	125.5	46.7	78.8	0.0
20~24세	—	102.4	34.5	64.2	3.7

주 : 1,000명당 피해인구

V. 시민성과 가치관영역(Citizenship and Value)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1990년 22%에서 1994년 28%로 증가하였다. 종교가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80년 65%에서 1994년 58%로 감소하였으며, 매주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비율도 43%에서 32%로 줄었다. 부모와 청소년자신과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청소년이 생각하는대로 조사한 결과 인생의 목표 73%, 복장 63%, 소비지출 41%, 데이트에서 허용되는 것 50%, 교육관 87%, 여성의 역할 73%, 환경문제 57%, 인종문제 66%, 종교 70%, 정치 49%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관, 삶의 목표, 여성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부모와 의견이 일치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출, 데이트에서 허용되는 것, 정치문제 등에서는 일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표 25와 같다. 1994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28.0%의 청소년들이 매월 1~2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4.8%가 연중 몇 차례 참여하였으며, 27.2%만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의 양상은 1980년 이후 변화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인종별로는 흑인보다는 백인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

(단위 : %)

구 분	1980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거의 매일	2.5	2.6	1.7	2.6	1.8	2.4	2.8	2.7	3.2
주 1회 이상	7.4	7.4	8.4	6.3	6.9	5.9	7.4	8.0	7.6
월 1~2회	14.0	14.1	14.0	13.4	13.0	14.6	16.5	15.0	17.2
연간 수회	45.2	44.9	44.9	45.4	43.3	44.6	41.7	44.0	44.8
없 음	30.9	31.0	31.0	32.3	35.1	32.4	31.6	30.3	27.2

2. 청소년의 가치관(Values)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표 26과 같았다. 1992년의 경우 ‘일에서 성공’, ‘안정된 직장’, ‘좋은 친구를 갖는 것’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어서 ‘자녀

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여가시간을 갖는 것'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자녀를 갖는 것', '부모나 친지들과 가까이 사는 것' 등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자의 경우 1972년 17.8%에서 1992년 45.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도 9.1%에서 29.4%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6 : 청소년의 가치관

(단위 : %)

구 분	1972년		1982년		1992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에서 성공	81.2	74.9	88.7	84.2	89.0	89.6
안정된 직업	74.7	59.9	87.4	83.3	87.1	88.6
돈을 많이 버는 것	17.8	9.1	35.8	20.9	45.3	29.4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	8.5	4.4	13.7	6.4	—	—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16.6	18.2	13.3	13.9	17.0	23.6
자녀를 가지는 것	—	—	42.7	56.3	39.0	49.2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	83.1	86.7	86.1	90.2	—	—
자녀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	59.5	61.6	72.1	69.9	74.5	76.5
부모나 친척들과 가까이 사는 것	8.3	12.4	15.6	20.1	15.2	18.7
지역을 떠나 이주하는 것	8.3	7.4	10.5	9.1	20.7	20.1
좋은 친구를 갖는 것	76.5	74.7	80.1	79.7	79.8	80.0
여가시간을 갖는 것	60.9	55.1	74.5	72.0	65.3	62.0

주 : 1972년 및 1982년 자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후에, 1992년 자료는 그해 졸업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3. 청소년의 직업만족(Job Satisfaction)

청소년들의 직업만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대체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43.2%,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41.8%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추가적인 교육기회’와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비율은 38.5%와 35.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의 연수 및 교육경험의 활용’에 대하여도 29.7%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퇴자의 경우는 졸업자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고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추가적인 교육기회’에 48.0%, ‘승진기회’ 42.0% 등에서 불만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의 연수 및 교육 경험 활용’ 37.4%, ‘안전 및 안정성’ 32.1%에 불만족을 표시한 비율도 높았다. 반면에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작업환경’ 36.9%, ‘안전 및 안정성’ 36.3%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7 : 청소년의 직업만족

(단위 : %)

구 분		계	매우만족	어느정도만족	불만족
임금 및 특별급여	졸업자	100.0	26.0	50.7	23.3
	중퇴자	100.0	23.8	48.4	27.8
중요성 및 도전기회	졸업자	100.0	34.9	47.8	17.3
	중퇴자	100.0	30.7	47.7	21.6
작업환경	졸업자	100.0	41.8	43.2	15.0
	중퇴자	100.0	36.9	44.9	18.2
승진기회	졸업자	100.0	30.6	34.1	35.3
	중퇴자	100.0	27.8	30.2	42.0
과거의 연수 및 교육경험 활용	졸업자	100.0	29.2	41.1	29.7
	중퇴자	100.0	21.7	40.9	37.4
안전 및 안정성	졸업자	100.0	43.2	33.0	23.8
	중퇴자	100.0	36.3	31.6	32.1
추가적인 교육기회	졸업자	100.0	29.6	31.9	38.5
	중퇴자	100.0	24.0	28.0	48.0

주 : 졸업자는 199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994년에 조사하였으며, 중퇴자는 1992년도 졸업대상자 중에서 중퇴하였거나 1994년까지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임

4. 청소년들의 부모와 의견일치 정도

청소년들이 부모와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8과 같았다. 1992년의 경우 부모와 의견일치 정도 ‘교육관’이 87%로 가장 높고, ‘인생의 목표’ 73%, ‘여성의 역할’ 73%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지출’ 41%, ‘정치’ 49%, ‘데이트에서 허용되는 것’ 50% 등의 항목에서는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1975년과 1992년을 비교해 볼 때에 ‘인생의 목표’, ‘데이트에서의 허용되는 것’, ‘교육관’, ‘여성의 역할’, ‘인종문제’, ‘종교’ 등의 항목에서 일치도가 높아졌으나 ‘소비지출’과 ‘환경문제’ 등의 항목에서 일치도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 부모와 의견일치 정도

(단위 : %)

구 분	1975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인생의 목표	67	74	72	72	72	71	73	71	70	73
복 장	63	68	66	65	64	64	63	62	62	63
소비지출	48	47	44	43	42	42	42	41	39	41
데이트에서 허용되는 것	41	48	46	46	45	49	50	47	48	50
교 육 관	82	87	87	87	87	87	87	86	86	87
여성의 역할	61	69	70	71	71	72	69	71	71	73
환경문제	58	54	53	50	50	48	53	55	57	57
인종문제	56	61	63	62	62	63	64	64	67	66
종 교	65	72	69	70	68	69	68	69	70	70
정 치	49	49	52	49	46	46	51	48	51	49

주 : 부모와 의견이 ‘very similar’ 또는 ‘mostly similar’인 경우

5. 청소년 범죄(Type of Crime)

청소년들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1993년도에는 전체 검거자arrests중 18세 미만이 17.1%, 18~24세가 27.5%으로 나타나 전체범죄

의 44.6%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인구 1,000명당 범죄로 검거된 18~24세 청소년의 수는 126.1명으로 1969년 66.2명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4~17세의 청소년의 경우도 130.3명으로 1969년의 96.5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강도, 살인, 강간, 절도 등 중범죄serious crime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29.3%, 18~24세의 청소년이 25.9%를 차지하고 있어 24세 이하 청소년의 비율이 55.2%에 이르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절도’ 73.3%, ‘방화’ 66.3%, ‘가택침입’ 62.8%, ‘강도’ 61.9%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폭행이나 음주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는 42.8%가 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7세 이하가 14%, 18~24세까지가 28.8%로 나타났다. 이중 ‘기물파괴’vandalism 69.9%, “소매치기” 61.0%, ‘풍기문란’ 50.3% 등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 청소년범죄 현황

구 분	검거자 비율(%)		검거자 수	
	17세이하	18~24세	17세이하	18~24세
전 체	17.1	27.5	130.3	126.1
중 범죄	29.3	25.9	45.2	24.4
살 인	16.2	41.2	0.2	0.3
강 간	16.3	26.7	0.4	0.3
강 도	28.2	33.7	3.1	2.0
폭 행	15.3	26.8	4.9	4.6
가택침입	34.3	28.5	7.2	3.8
절도/도둑	31.3	23.4	23.8	11.4
자동차절도	44.6	28.7	5.2	1.9
방 화	49.3	17.0	0.4	0.1
기 타	14.0	28.8	85.7	104.7

주 : 1. 검거자 비율은 전체 검거자 중에서 동 연령대 인구의 비율이며, 검거자 수는 동 연령대 인구 1,000명당 검거된 인원임

2. 기타에는 단순폭행, 위조, 사기, 소매치기, 기물파괴, 무기소지, 매춘, 성희롱, 약물남용, 도박, 음주운전, 음주, 술주정, 풍기문란, 부랑자 등이 포함됨

3. 1993년도 자료임

6. 청소년의 교육적 포부(Educational Aspirations)

고등학생들의 교육적 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1992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나 그 이하’의 학력을 원하는 경우는 5.3%에 불과한 반면에 ‘대학졸업’ 36.1%, ‘대학원 이상’ 33.3% 등으로 나타나 전체의 69.4%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이 남자 67.3% 보다는 여자 71.6%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1988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원하는 학력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이 1988년 38.8%에서 69.4%로 크게 높아진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하의 학력을 원하는 비율이 24.6%에서 5.3%로 크게 낮아졌다.

표 30 : 청소년의 교육적 포부

(단위 : %)

구 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2년이하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1992	계	5.3	25.3	36.1	33.3
	남자	6.7	26.0	36.2	31.1
	여자	3.9	24.5	36.2	35.4
1988	계	24.6	36.6	21.3	17.5
	남자	28.2	34.0	20.5	17.3
	여자	21.1	39.2	22.0	17.8

VI. 미래영역(Future)

고등학교 졸업후의 활동을 1994년에 조사한 결과는 전업학생 22.0%, 학생 겸 취업 32.8%, 취업 34.0%, 가사 2.6%, 가사 겸 학생 또는 가사 겸 취업 3.4%, 군입대 3.2%, 기타 2.0% 등으로 나타났다. 중퇴자의 경우는 취업이 64.4%, 가사 14.1%, 기타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세에서 34세 사이 연령집단의 교육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1993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을 기준(1.0)으로 남자의 경우 고등

학교 중퇴 0.67, 전문대college 1.12, 4년제 이상 대학 1.57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 고등학교 중퇴 0.59, 전문대학 1.31, 4년제 이상 대학 1.9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 이후 매년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졸업자와 중퇴자 간에 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경우 취업 34.0%, 학생 겸 취업 32.8%, 전업학생 22.0%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비율이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취업 39.4%, 학생겸 취업 29.4%, 전업학생 21.9%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학생겸 취업 36.2%, 취업 28.4%, 전업학생 22.2% 등으로 나타났다. 중퇴자의 경우는 대부분 취업 61.4%을 하거나 가사 14.1%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취업이 79.5%로 압도적인 비율은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 취업이 41.8%이고 가사도 29.3%에 이르고 있다. 졸업자와 중퇴자를 비교해보면 졸업자의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비율(전업학생 및 학생 겸 취업자)이 54.5%에 이르고 있으나 중퇴자는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 비율은 졸업자 34.0%에 비하여 중퇴자는 6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취업자의 비율이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 고등학교 졸업후의 활동

(단위 : %)

	계	전업학생	학생 겸 취업	취업	가사	가사 겸 취업 또는 학	군입대	기타
졸업자 계	100.0	22.0	32.8	34.0	2.6	3.4	3.2	2.0
남 자	100.0	21.9	29.4	39.4	0.1	1.0	5.6	2.6
여 자	100.0	22.2	36.2	28.4	5.1	5.8	0.8	1.5
중퇴자 계	100.0	3.4	4.4	61.4	14.1	7.0	0.2	9.5
남 자	100.0	2.0	6.0	79.5	0.2	1.7	0.1	10.5
여 자	100.0	5.0	2.7	41.8	29.3	12.7	0.3	8.3

주 : 1992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4년에 조사한 자료임

2. 청소년들의 실업 (Unemployment of Young Adult)

16~24세 사이 청소년의 실업을 조사한 결과는 표 32와 같았다. 1995년도
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16~
19세의 경우 남자 18.4%, 여자 9.2%로 나타났으며, 20~24세 청소년의 경
우는 남자 16.1%, 여자 9.0%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
의 실업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종별로 볼 때 흑인과 라틴계는 평균이상의 실
업율을 보인 반면에 백인의 경우 평균이하의 실업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흑인
의 경우 16~19세의 남자 37.1% 여자 34.3%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24세의 경우 남자 17.6% 여자 17.8%가 실업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표 32 : 청소년들의 실업

(단위 : %)

구 분	1950	1960	1970	1980	1990	1995
16~19세 남자	12.7	15.3	15.0	18.3	16.3	18.4
여자	11.4	8.9	8.4	12.5	9.1	9.2
20~24세 남자	8.1	13.9	15.6	17.2	15.7	16.1
여자	6.9	8.3	7.9	10.4	8.5	9.0

주 : 실업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비율

3. 고등학교 졸업후의 소득

1993년도에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소득을 조사한 결과는 표 33과
같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경우는 연간 평균소득이 \$9,
421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11,122로 여자 \$6,91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소
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의
수입은 평균 \$4,968 이었으며 남자는 \$5,631, 여자는 \$4,331 이었다. 중
퇴자의 경우는 평균수입이 \$7,840이었으며, 남자는 \$9,254, 여자 \$5,693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수입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퇴자의 평균수입이 \$7,840인데 비하여 졸업자의 수입은 평균
\$9,421로 졸업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자의 경우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3 : 취업자의 평균소득

(단위 : \$/년)

구 분	고 등 학 교 졸업후 취업	대학진학	중 퇴
전 체	9,421	4,968	7,840
남 자	11,122	5,631	9,254
여 자	6,913	4,331	5,693

주 : 1992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3년도 소득을 조사한 자료임

4. 고등학교 졸업후의 직업이동(Job Transitions)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청소년들의 직업이동 상황은 표 34와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에 직업을 이동한 수를 보면 고등학교의 졸업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7%가 3~4회 전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6.0%는 5~9회의 빈번한 직업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는 직업을 갖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직업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자의 경우는 3~4회 직업이동이 42.8%로 가장 높고, 1~2회가 23.6%, 5~9회가 23.4% 등으로 나타났다. 중퇴자의 경우 3~4회가 37.1%로 가장 높고, 1~2회가 22.4%, 5~9회가 20.9%등을 나타냈으며, 한 번도 직업을 갖지 않은 비율이 18.5%에 달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퇴한 여자의 경우 직업을 갖지 않은 비율이 27.5%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4 : 청소년의 직업이동

(단위 : %)

구 분	계	없음	1~2개	3~4개	5~9개	10개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계	100.0	6.1	15.2	51.7	26.0	1.1
남 자	100.0	4.4	13.2	55.3	25.9	1.1
여 자	100.0	8.2	17.7	47.1	26.0	1.0
대학진학자 계	100.0	9.3	23.6	42.8	23.4	0.8
남 자	100.0	8.3	26.0	42.9	22.2	0.7
여 자	100.0	10.2	21.6	42.8	24.5	0.9
중퇴자 계	100.0	18.5	22.4	37.1	20.9	1.1
남 자	100.0	10.4	17.7	42.4	28.0	1.7
여 자	100.0	27.5	27.6	31.4	13.1	0.5

주 : 1992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2년 여름에서 1994년 봄 사이에 전직한 내용을 조사한 자료임

5. 소득과 교육

소득과 교육과의 관계는 표 35와 같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연간소득을 1.0으로 할 때에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자의 소득은 0.67,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1.12,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의 소득은 1.57 등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자가 0.59, 전문대졸업자가 1.3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1.99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력간에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더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2배에 가까운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소득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 : 소득과 교육

(단위 : \$)

구 분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대학 이상 졸업
남 자	13,961 (0.67)	20,870 (1.0)	23,435 (1.12)	32,708 (1.57)
여 자	7,674 (0.59)	13,075 (1.0)	17,157 (1.31)	26,043 (1.99)

주 : 25~34세 연령의 연소득의 평균치(median)를 1993년 자료를 비교한 것이며,
()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임